

현재 무용지식③

《무용조곡의 개념과 특징》

무용조곡은 통일적인 하나의 주제를 천명하기 위하여 몇개의 무용소품을 묶어서 만든 무용작품 형식의 하나이다.

무용조곡을 이루는 개별적인 소품들은 그 자체로서 일정한 사상에술적독자성을 가지면서도 총체적으로는 하나의 사상주제적내용을 형성하는데 복종된다.

무용조곡은 여러개의 무용소품으로 이루어지므로 생활을 비교적 다양하고 폭넓게 반영할수 있다. 그러나 그 다양하고 폭넓은 생활화폭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통일되어있어야 한다. 때문에 무용조곡에 포함된 무용소품들은 서로 내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무용조곡에는 개별작품종목들이 일정한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연결되고 종합되어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 형성되는것도 있다. 무용조곡은 군무를 비롯하여 독무, 3인무, 등 여러 형태의 무용으로 구성된다. 최근에 민족예술단에서 창작공연한 무용조곡《평양성 사람들》도 성과작의 하나이다.

舞 朝鮮 무용통신

発行 :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中央本部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4-33-14 TEL03-3817-0431

제 4 호 (루게 제 4 호)

주제89 (2000)년 3월 15일 (수)

무용부장모임이 진행되었다.

무용조곡상연을 위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리기로 합의!

1999년 11월 20일 (토) 21일 (일) 의 량일간에 걸쳐 교토에서 전국 문예동 무용부장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니시도쿄지부 리선옥부부장을 비롯한 각 지부 무용부장 및 위원들 11명이 참가하였으며 작년 진행된 전국 무용부장회의이후의 사업을 총화짓고 총련중앙위원회 제18기 3차회의 확대회의결정에 따라 앞으로 문예동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토론하였다. 특히 무용조곡《세월과 더불어》공연을 조직함으로써 전국적인 범위에서 문예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3년간에 걸쳐 진행한 무용강습의 성과를 집결하고 널리 과시할것을 합의보았다.



무용자료안내

〈조선민속무용기본동작 1〉
비데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조선무용기초동작 1, 2 단계〉
비데오테이프 ¥3,500-
음악테이프 ¥1,500-

CD판 〈조선무용아동곡집 15곡〉 ¥2,500-

※이 CD는 무용을 자유로히 창작할수 있도록 재를 달지 않았습니다.

☎ 문의는 문예동중앙 ☎03-3817-0431에!



문예동맹원기량전습단이 조국에서의 강습을 성과적으로 진행

년말로부터 년초에 걸쳐 진행된 문예동맹원기량전습단은 지난 1999년 12월 22일에 일본을 떠나 2000년 1월 12일까지 조국에서의 무용강습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강습에는 학교교원 1명, 연구소소장 1명, 가무단단원 1명, 일반맹원 6명이 참가하였으며 평양음악무용대학 부교수인 리인숙선생님, 예술교류협회 무용지도원 김은하선생님, 예술교류협회 전습과 오영옥선생님을 강사로 모시였다. 강습내용으로 바훈련과 기초련습, 조선무용기본동작 1, 5, 7, 12동작, 작품《복춤》, 《장고춤》을 배웠다.

또한 평양음악무용대학 안무리론강좌장인 정영일선생님께서 《무용창작에서 필요한 형태와 내용》에 대하여 3일간 강의해주시였다.

9명의 강습참가자들은 이 강습을 통하여 조선무용의 특징적인 맛과 멋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였으며 지역에 돌아가서 이 강습내용을 널리 보급하여 문예동사업에 더 적극 나설 결의를 안고 강습을 끝내였다.

舞 〈MAI〉 朝鮮舞踊研究所

対象一六歳~成人 内容一舞踊とチャンゴ
場所一生野教室, 布施教室
問い合わせ ☎06-6787-1825
代表 任 秀 香

2000年 4月5日 (水)

《第二回舞踊発表会》

森之宮青少年会館文化ホール

中西朝鮮舞踊研究所

中学生 (月) 午後 6:00~7:00
成人女性 (火) 午後 7:40~9:00
小低学年 (火) 午後 7:00~8:30
小高学年 (火) 午後 7:00~8:30
場所 總聯中西支部3階多目的ホール
責任者 金 里 美

2000年4月30日 (日) 発表会 開催
東大阪市民会館

조선무용의 사랑가로 되느냐, 애호가로 되느냐?

문예동오사까 송영애

2년 연속하여 연말에 진행된 기량전습단 무용강습에 참가하면서 조국의 품에 안기여 조선무용을 배울수 있는 더없는 행복감에 휩싸이며 이번 강습을 통하여 다시 새것을 찾게 되었다.

《조선무용은 느리고 부드럽고 건들어지며 흥취있다.》

저는 이 강습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말씀의 진 뜻을 깊이 인식하였으며 이 말씀따라 춤을 출 때 조선무용의 맛과 멋이 형성되고 조선무용이 완성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앞으로 동무는 조선무용의 사랑가로 되느냐, 애호가로 되느냐?》

안무가선생님의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으나 그 답-나는 애호가로 되겠다-을 이 기간에 찾아낸것이 또 하나의 귀중한 나의 강습성과이다.

조국에서 강습을 받고도 일본에 돌아가니 문예동을 떨어져가는 동무들이 많은속에서 저는 조선무용을 계속 사랑하고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로 해나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저를 안아준 조국에 보답하는 길이며 일본에서도 조선무용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저는 앞으로 문예동무용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사업을 벌림으로써 동포들의 민족심을 더 키워주며 후대들에게도 민족의 넋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역문예동사업에 헌신해나가겠다.

우리 무용소조

조또지부무용소조

1990년에 결성.결성한지 10년이 지난다니 무용에 대한 소조원들의 열성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소조활동이 얼마나 즐거운 마당으로 되어있는지 리해할수 있다.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여왔다. 고 자부하는 소조원들. 작년에 진행된 총련 지부대항 예술경연대회 일반군무부문에서 은상을 쟁취한것은 만사람의 기억에 생생하다. 대를 이어 계속 소조활동을 강화하여 10년의 역사를 더 늘여나가겠다.

소조장-박말자 지도원-리송영 소조원-13명



문예동 효고지부 주최

제20차 《'99효고조선예술의 밤》

지난 11월 23일 神戸国際交流会館 메인홀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99효고조선예술의 밤》도 올해로 20번째를 헤아린다. 무용부에서는 이 공연에 초청반이 《오복놀이》, 《칼춤》, 《우리의 금수강산》을, 너맹반에서는 《고구려무희》를 무대에 올렸다. 너맹반에서는 11명중 7명의 맹원이 5월부터 연습을 벌렸으며 초청반맹원들은 9월에 있었던 《강기예술경연대회》준비와 함께 8월말부터 22명전원이 연습하고 출연하였다. 문예동효고 무용부 맹원들은 이 공연을 계기로 이 기간에 제고된 기술기량과 문예동내의 조직성을 계속 다져 2000년 12월에 발표하는 무용조곡을 완성하는데 전력을 다해나갈 결의로 충만되어있다.



문예동도까지지부결성 40돐기념공연

《만발하여라 민족문화의 꽃》

지난 1월 30일 愛知勤勞会館에서 문예동도까지지부 결성40돐을 기념하여 《만발하여라 민족문화의 꽃》이 현하의 동포들과 일본인민들 1,300명을 동원하여 공연이 진행되었다.

각 부들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양화, 세분화된 동포들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문학예술창작과 공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는데 목적을 둔 이번 공연에는 문예동무용부, 음악부, 현하 학생들이 출연하였으며 군무《봄꽃》, 《박편부》, 《봄날의 기쁨》이 피로되었다. 특히 《봄향기》는 문예동중앙 무용부 현계광부장의 협력밑에 작품완성에 한사람같이 달려붙었다.



올해 4월부터 나고야조선초급학교로 통합하게 되는 아아찌 제1,2,3학생들이 출연한 노래와 아동무용《우리의 배움터 제일이죠》는 관람자들에게 민족교육을 대를 이어 지켜야 할 중요성을 더욱 깊이 안겨주었다.

이 공연이후 문예동에 가맹하겠다는 동포들이 많이 나와 오늘에는 무용연습날이면 연습장이 흥성거린다. 문예동도까지지부 무용부는 이 공연을 계기로 계속 자체의 기술기량을 높여 무용조곡상연사업을 성과적으로 맞이할 결의로 들끓고있다.